

## 이재명·조국 전면 등판...영광군수 재선거 전국 이목 집중

지역 내 '월세살이' 조국혁신당 돌풍에 민주당도 '맛불' 대표, 오늘 현장최고위원회의 텃밭 지지층 결집 주력  
승부 예단하기 힘들 만큼 '민심 요동'...양 당 화력 집중

10·16 영광군수 재선거에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1야당, 제2야당 대표가 모두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선거 전면에 등판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월세살이'를 통해 영광·곡성에 상주하며 바다 민심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텃밭 사수를 위해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영광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맛불'을 놓을 예정이어서 정치권이 재선거 결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22일 민주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30분 장세일 영광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주철현 전남도당 위원장, 장세일 예비후보, 박지원·이재호·신정훈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영광·곡성 후보자 윤리서약식·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영광터미널시장에서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오후 2시엔 영광농협 대회의실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기초단체장 선거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여서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영광군수 재선거 총력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월세방까지 얻고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조국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 민주당 영광군수 재선거 선거대책 위원장은 5선의 박지원 의원이 맡고 있다. 박 의원은 매주 주말 영광 현지를 찾아 표

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정태래 국회의원은 영광군수 재선거에 힘을 보탤 태세다.

추석 전까지만 해도 재선거에 자신감을 보였던 민주당이 총력 지원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은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추진 전부터 영광·곡성에 월세방을 얻어 직접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추석 연휴 직후 첫 최고위원회의도 혁신당 장현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열었다. 조 대표는 지난 21일 장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석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영광군수 재선거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1당 체제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데다, 민주당 경선 과정의 잡음, 조국 대표의 올인 전략까지 맞물려 영광 지역 표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영광군수 재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선거 결과가 2028년 지방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텃밭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생체기를 낼 수 있고, 호남 정치 붕괴에 실망한 지역민 여론이 급속하게 민주당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민주당을 꺾고 영광군수 선거 승리를 쟁취할 경우 2년 후 지방선거에서도 호남 패권을 놓고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비례정당의 한계를 넘어 당세를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가 초점전 양상을 기록한 만큼 민주당 내에선 텃밭인 영광군수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적지 않다"며 "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양 당 모두 영광군수 선거에 화력을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재정 기자



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 거리예술 축제의 대행사인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지난 21일 동구 금남로에서 개막된 가운데 인생사의 다양한 면면을 들여다보고 아픔을 보듬어주는 '아스팔트 블루스'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18개의 국내 작품과 3개의 해외 초청 공연, 1개의 제작 공연 등 총 22개 작품을 선보인 프린지페스티벌은 22일까지 이틀간 금남로와 비엔날레 전시관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했다. /김예리 기자

## 광주 AI단지 1단계 4개월 만에 공사 재개

내년 4월로 완공 지연...市 "2단계 예타 면제 문제 없을 것"

시공사의 폐업으로 중단된 광주 첨단 3지구 인공지능(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공사가 4개월 만에 재개됐다.

AI 산업융합 집적단지 사업 중 기반 시설(인프라) 중심의 1단계 사업(2020~2024년)은 당초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공사가 중단된 만큼 완공도 내년 4월로 지연됐다.

22일 광주시·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연면적 244천820㎡(총사업비 4천369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AI 집적단지 1단계 사업의 실증·창업동 시공사가 지난 주에 재선정됐다. 지난 5월 초 기존 시공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한 이후 4개월 만이다.

AI 집적단지는 데이터센터동(지상 2층·2천17㎡), 실증·창업동(지하 1층 지상 7층·6천331㎡),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동으로 구성돼 있다. 데이터센터동은 지난해 2월 준공돼 11월부터 운영 중인 반면, 실증·창업동은 6층 철골공사와 시뮬레이터동 외관 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중단됐다.

건축 공사가 중단된 것과 별도로 전기·통신·소방 공사와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동의 실증 장비 투입 작업은 계속돼 왔다.

재선정된 시공사는 잔여분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로 약 8개월이 소요돼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건축·기계·토목·조경공사를 최대한 단축시켜 내년 4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률은 60%다.

광주시는 1단계 사업 준공 시기가 지연됐지만 기술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2단계 사업(2025~2029년) 목표 시기 완료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기재부)에 9천억원 규모의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면제를 신청했다.

지난 5일엔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예타 면제를 요청하는 강기정 시장의 요청에 "AI 2단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면제는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단계 예타 면제의 경우 윤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경 기자

## "벼멸구·인삼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을"

장기 폭염 원인...道, 신속 지원 건의

전남도는 22일 "지속적인 폭염(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와 인삼 잎·줄기 마름(고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폭염일수가 23일로 평년보다 16일이나 길고, 평균 기온도 28.5도 평년보다 2.2도가 높아져 벼멸구가 급속히 확산되고 인삼도 잎마름 등 생육 장애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기준 전남지역 벼멸구 피해는 1만9천603ha로 전체 벼 재배 면적 14만8천ha의 13.3%에 달한다.

폭염으로 인삼 잎·줄기가 말라 죽는 피해도 속출했다. 피해 규모는 영암 88ha, 해남 42ha, 나주 19ha, 영광 5.7ha 등 총 135ha다. 전남지역 인삼 재배 면적(378ha)의 38%에 이른다. /양시원 기자

**Today**  
역대급 '기름 폭우' 호남 피해 속출 6면  
입지 넓혀가는 광주공공배달업 16면  
KIA "이제는 개인 타이틀 정복" 20면

2024 Art Bank '예술을 선물합니다' ▶ 11-14면

## 제3회 광주버스킹월드컵

# GWANGJU BUSKING WORLD CUP FESTIVAL



## 2024. 10. 1.(화) - 10. 6.(일)

### 5·18민주광장, 광주동구 일원

주최 광주광역시청
주관 광주광역시 문화재단
협력 A.C.C.C
지원 GJTO 광주관광공사
후원 Verviers
아주커처리